

# 日本 醫學圖書館界의 現況

서울大學校 醫學圖書館

朴 鍾 根

Situation of Japanese Medical Libraries

Chong Keun Park

Medical Librar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 1. 序 文

서울大學校 綜合 10個年 計劃의 一環으로 現代의 構造의 새 醫學圖書館이 新築되어 74年 2月 16日 開館되었다. 때를 맞추어 權彝赫 學長과 金祐謙 圖書館長의 格別한 配慮로 圖書館 司書의 海外研修에 推薦되어 China Medical Board (美國의 極東地域 醫學教育 機關에 對한 援助團體)의 財政支援을 받고 73年 8月 30日 부터 74年 2月 26日까지 6個月間 日本 慶應義塾大學 醫學情報센터에서 醫學圖書館 業務에 關한 研修를 받게 되었다.

日本은 地理的으로 매우 가까운 距離에 있고 歷史的으로도 여러가지 깊은 關係가 있으면서도 醫學圖書館 分野에 있어서는 兩國間에 紹介된 것이 別로 없고 또 公式的인 關係가 없었음을 안타깝게 生覺한다.

現代는 情報의 洪水時代라고 말하듯이 每年 쏟아져 나오는 數百萬 文獻들을 個個 圖書館이 모두 그것을 갖추고 迅速히 奉仕한다는 것은 想像조차 할 수 없는것이 오늘날의 圖書館이다. 이를 보다 迅速하게 處理하기 爲해서는 情報處理의 機械化와 相互協力은 現代圖書館 業務의 趨勢이며 研究해야할 課題이기도 하다. 특히 醫學圖書館의 特殊性은 어느 專門圖書館 보다도 이러한 相互利用이라는 서비스 妹體를 가장 切實히 要求하며 따라서 小地域單位, 國家 또는 世界的인 Network의 必然的인 要求와 그의 놀랄만한 奉仕效果는 周知의 事實이다.

이러한 面에서 볼 때에 韓日兩國의 醫學圖書館

의 相互協力이 今年에서야 이루어지게 되었음은 늦은感은 있으나 多幸한 일이다.

筆者가 研修했던곳은 慶應義塾大學 醫學部 醫學情報센터(以下 慶應大學 醫學圖書館)였었는데 이 大學은 圖書館 學科가 있는 日本 唯一의 大學이며 또 손꼽히는 私學의 名門이기도 하다.

慶應大學 醫學圖書館을 中心으로 해서 日本의 醫學圖書館과 同協會의 近況을 紹介함으로써 日本의 醫學 圖書館 活動을 理解하고 또 그러므로서 우리나라의 醫學圖書館 發展에 보탬이 될것을 期待하며 우리와 다른 몇가지 特殊한 面에 對해서만 生覺나는대로 紹介할까 한다.

## 2. 日本醫學圖書館協會

1973年 10月 18日, 19日 兩日間 東京北方約 400키로 地點의 福島 縣立醫科大學 圖書館에서 日本醫學 圖書館協會 第44次 定期總會가 열렸다. 正會員인 59個 醫科大學과 製藥會社 및 研究所等의 準會員을 包含한 68個 加盟館에서 選發된 代表 約 2百餘名이 參席한 맘모스 會議場이었다. 1個月 前에 出席者가 確定되기 때문인지 大學別로 指定된 場所에 出席者의 名札과 두툼한 會議資料가 미리 準備되어 있었다. 첫날에는 司書會議라 해서 主로 館長級인 非專門職은 參席치 않고 總會時의 重要 案件만을 大體的으로 討論하고 意見을 調整한뒤 다음날 總會時에는 全員 參席하여 全般的인 案件을 綜合 審議 通過시킨다. 兩日間 그들의 討論過程을 지켜보고 眞摯하고 誠意있는 討論은 아주 印象的이었다.

筆者의 參加資格은 研修生으로서 參加했지만

한편으로는 韓國醫學圖書館協會의 한 任員으로서 韓國醫學圖書館協會를 紹介하고 그동안 非公式의 推進되어오던 兩國의 醫學圖書館協會間의 相互貸借, 人的交流等의 懸案問題를 公式提議 討議할것도 諒解받았다. 單純히 參觀만이 아니고 이것을 그들의 總會 스케줄에 넣기된 것은 慶應大學 醫學圖書館의 天野善雄氏(日本醫學圖書館協會 理事)의 積極的인 周旋과 協會 理事들 및 當番館인 福島縣立 醫科大學圖書館 當局의 友好的인 配慮로 生覺된다.

多幸히 이의 結實을 보아 74年度에는 日本醫學圖書館協會의 任員이 우리 韓國醫學圖書館協會의 第7次 定期總會에 參席키 爲해 5월에 訪韓했고 또 9월에는 日本醫學圖書館協會 第45次 定期總會에 參席키 爲해 이미 招請狀을 받고 手續中에 있음은 兩國의 圖書館 發展을 爲해서 꼭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1) 歷史

日本醫學圖書館協會는 1927年 5個의 加盟館으로써 官立醫學大學 附屬圖書館協會라는 이름으로 發足된 以來 1929년에는 8個 加盟館으로써 醫科大學 附屬圖書館協會, 1949년에는 16個 加盟館으로써 日本醫學圖書館協會, 1954년에는 36個 加盟館으로써 現在의 日本醫學圖書館協會로 이름을 바꾸어 1973年度에는 2個의 新設 醫科大學의 加入으로써 70個 會員으로 發展되어온 것이다. 現 서울大學校 醫科大學의 前身인 京城大學 醫學

部가 日本 醫學圖書館協會에 加盟한 것은 1937年 即 日本醫學圖書館協會가 創設되어 11年째 되던 해였다.

2) 組織

圖 1에서 보는바와 같이 各 加盟館의 所在地에 따라 9個의 地域區로 나누고 各 地域區에서는 評議館을 定하여 同 協會의 支部로서 自己地域內에서 中心 圖書館이 되어 相互協力等 보다 緊密한 業務의 協助를 꾀하며 總會에 提出할 意見 및 討議事項을 集約해서 自己地域區의 代表意見으로 決定한다.

그리고 評議員은 各 地域區에서 1人씩(但 關東地區는 3人) 現職 圖書館長 인者 中 選出하여 11人으로 評議會를 構成한다. 評議會는 會長을 選出하고 入會加盟의 選定權이 있다.

또 우리나라와는 달리 理事會는 執行部로써 各 分野의 協會業務를 分擔맡고 그 밑에 몇사람씩의 委員을 두어 所管業務를 協議 處理한다.

教育 擔當理事는 1년에 70名씩 3日間 東京과 大阪만을 3年만에 번갈아가며 醫學圖書館 司書에 對한 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協會의 豫算은 出版物 販賣收入을 合해서 約 1,700萬圓이고 機關誌 “醫學圖書館”을 季刊으로 發刊해서 今年에 第 20卷이 나오고 있다. 그 外에 “JMLA 會報”도 季刊으로 내고 있다.

3) 協會 加盟에 關한 節次 및 資格基準

日本醫學圖書館協會에 加入하려면 여러가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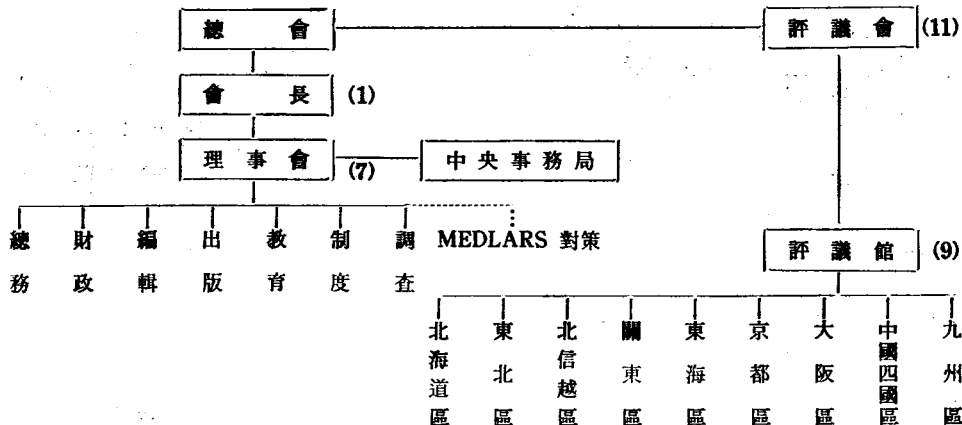


圖 1. 日本醫學圖書館協會 組織機構表

다로운 節次를 거쳐야 한다.

우선 加入 希望館은 總會 2個月 前에 아래와 같은 書類를 各各 5通씩 作成하여 會長에게 提出해야 한다.

- ※ 具備書類
- ① 圖書館의 沿革, 施設, 設備
- ② 圖書館의 機構 및 運營現況
- ③ 館員名簿(履歷, 資格, 待遇等 記錄)
- ④ 過去 3個年間的 圖書購入費, 年豫算 및 그 支出內歷

- ⑤ 藏書目錄(學術雜誌, 單行本の 藏書內容)
- ⑥ 複寫利用의 設備 또는 이에 代할수 있는 施設

加入 申請書가 接受되면 會長은 4~5人의 調査委員을 現地에 派遣하여 이미 提出된 書類와의 一致 如否를 確認, 再調査토록 한후 實地調査 報告書를 作成 提出케 한다. 그리고 그 報告書와 아래와 같은 資格基準에 適合한가를 對照 審議한 후 加入을 確定하는 것이다.

※ 加入 資格基準

① 醫學, 齒學에 關한 專門教育 또는 研究를 目的으로 하는 教育機關, 研究機關에 附設되어 있는 圖書館 혹은 診療를 主目的으로 하고 專門의 研究가 活發히 行해지고 있는 機關에 附設되어 있는 醫學圖書館이라고 稱하는 圖書館일 것.

② 藏書의 規模는 4萬冊(製本雜誌는 製本單位를 1冊으로 하고 未製本雜誌는 1卷을 1冊으로 計算한다) 以上으로 하고 其中 80% 以上은 醫學, 齒學에 關한 專門의 資料일 것.

③ 過去 10年內에 發行된 醫學, 齒學에 關한 專門書를 最近 3個年에 걸쳐 每年 1000冊 以上 受入되어야 할 것.

④ 資料購入費(製本費 除外)는 年豫算 1,000萬圓(1,400萬圓) 以上일 것

⑤ 現行醫學雜誌 500種(購入) 以上 受入하고 있을 것.

⑥ 圖書館 서비스에 必要로 하는 醫學에 關한 二次資料를 整備하고 있을 것.

⑦ 館長, 主任司書, 圖書委員會 等の 組織機構와 責任體制가 整備되어 있을 것.

⑧ 專用施設이 設置되어 近代的인 圖書館 技能을 運營하기에 適合한 施設일 것.

⑨ 專任司書(事務系, 技術職員, 清掃等은 除外)가 5名 以上일 것.

⑩ 參考事務, 相互利用 業務에 專念하는 職員이 1名 以上 있을 것.

⑪ 1年間的 開館日數가 250日 以上일 것

3. 政府의 圖書館 政策

74年 1月 11日에 文部省의 情報圖書館課의 專門員인 沙藤氏의 紹介로 情報圖書館의 吉川 課長을 만날일이 있었다. 情報圖書館課는 1965年에 文部省 大學學術局밑에 新設된 課이다.

吉川課長의 말에 의하면 政府의 圖書館政策의 當面 課題는 圖書館 시스템의 피라미드形 驅逐, 必要한 司書의 定員數의 確保 및 司書의 待遇와 質의 向上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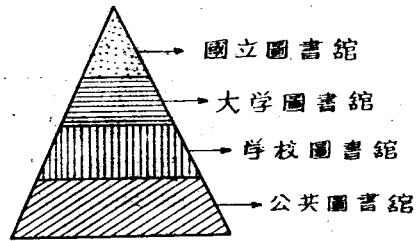


圖 2. 피라미드형 시스템

政府 組織에 圖書館 全擔課가 있다는 것 自體가 圖書館에 對한 積極的인 姿勢를 말해주는 것이며 또 그 事務內容을 보면 아주 圖書館 實務 깊숙한곳까지 關與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現狀은 圖書館으로써 아주 多幸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情報圖書館課에는 庶務係, 學術情報係, 學術資料係, 大學圖書館係의 4個係가 있는데 이들 各界의 事務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學術情報係

- ① 學術情報 分科委의 事務에 關한일.
- ② 國文學 研究 資料에 關한 일

- ③ 國立大學 文獻 센터에 關한 일
- ④ 學會, 協會에 關한 일
- ⑤ 도큐멘테이션 講習會, 漢籍擔當 職員講習會에 關한 일
- ⑥ 學術情報의 流通利用의 實態調査에 關한 일
- ⑦ 學術雜誌의 綜合目錄에 關한 일
- ⑧ 學術情報 處理體制의 整備에 關하여 企劃하고 또 援助와 助言을 하는 일

2) 學術資料係

- ① 學術資料 分科會의 事務에 關한 일
- ② 學術研究 成果의 刊行費 補助金의 事務에 關한 일
- ③ 學術映畫製作 및 補給에 關한 일
- ④ 研究特別經費(解剖體 經費, 實驗動物經費, 標本維持費, 系統 保存費)에 關한 일
- ⑤ 動物 實驗施設에 關한 일
- ⑥ 그 밖에 學術資料의 蒐集, 保存, 活用に 關한 일

3) 大學圖書館係

- ① 大學圖書館 視察委員의 事務에 關한 일
- ② 大學圖書館 實態調査에 關한 일
- ③ 大學圖書館 改善協議會에 關한 일
- ④ 大學圖書館 職員 講習會 및 長期研修에 關한 일

⑤ 國立私立大學 圖書館 協議會 또는 地區 大學圖書館協議會等과의 連絡과 거기에 對한 援助와 助言에 關한 일

⑥ 大學의 附屬圖書館에 對하여 基準을 決定하고 또 그 組織 및 運營에 關하여 援助와 助言을 하는 일

⑦ 그밖에 大學 또는 研究機關의 附屬圖書館 그밖의 學術에 關한 圖書施設에 對하여 學術의 進興을 爲해서 援助와 助言을 하는 일

또한 情報圖書館課에는 實務經驗이 豊富한 4名의 專門委員을 두어서 여러가지 實態를 把握하고 또 資料를 蒐集해서 이것을 分析, 檢討하고 建議稟議함으로써 보다 効果的인 圖書館 政策樹立에 助言케 하고 있다. 그 중에서 特히 括目할만한 일은 아직 積極的인 參考事務를 하지 않고있는 圖書館 중에서 1년에 2~3個館을 選定해서 參考業務를

開始하도록 중용 내지는 命令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參考業務라는 것은 公共圖書館의 그런것이나 大學圖書館의 Information desk에서의 Quick reference 도 아닌 二次資料를 使用한 特定主題에 對한 文獻探索이나 抄錄, 索引 또는 翻譯서비스 등의 보다 積極的인 參考業務를 말하는 것이다.

요즈음은 圖書館의 서비스 尺度를 이러한 積極的인 參考業務의 量과 充實度에 依해 判斷한다는 것도 옳은 이야기라 생각된다. 이러한 圖書館業務의 趨勢나 展望에 政府自身이 먼저 이를 認識하고 圖書館을 리드해 갈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現狀이라고 하겠다.

豫算은 國立大學의 경우 圖書購入費, 維持費(臨時職員 人件費, 水道, 電氣稅等)를 包含한 圖書館 全豫算의 25%를 該當大學의 中央圖書館에 支援해 준다고 한다. 또한 司書職 公務員의 待遇는 特別히 優待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國立大學圖書館의 境遇 一般職 4等級이면 課長, 事務長級이며 係長이면 5等級인데(日本의 境遇는 公務員의 職級이 8等級에서 1等級까지 있음) 司書의 境遇는 오랜 經歷이 있고 아주 有能하면 平職員으로써 最高 4等級까지 即 課長級の 待遇까지 해준다고 한다. 情報圖書館課 專門員인 沙藤氏의 말을 빌리면 이러한 待遇를 現在の 4等級에서 最高 2等級까지 끌어 올리려고 關係機關과 協議 折衝中이라고 한다.

4. 現 況

1970年의 日本 厚生省 調査部의 統計에 依하면 日本의 醫科大學은 國立 26個, 公立 9個, 私立 24個校의 總 59個 醫科大學이 있으며 이의 學生 定員은 5,535名이다. 醫師는 總 118,990名이고 人口 10萬에 對해서 醫師 1,147名꼴이 되는 셈이다. 圖書館 學科가 있는곳은 1951년에 新設된 4年制 正規 및 大學院 코스가 있는 慶應大學 하나 뿐이고 그 外에는 初級大學 過程인 2年制의 圖書館 短期大學이 하나 있을 뿐이다. 따라서 圖書館 學의 教育制度는 우리나라가 앞섰다고 하겠다. 그러나 美國이나 英國等 先進國에서의 圖書館 教

育을 받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比해서 훨씬 많은 것 같다. 分類表는 68個 醫學圖書館中 半以上인 37個 圖書館이 NDC(日本十進分類表)를 쓰고 있으며 NLMC(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lassification)나 BMLC(Boston Medical Library Classification)를 쓰고 있는 大學은 約 20個 大學 뿐이다. 그러나 最近에는 大部分의 醫學圖書館이 NLMC로 再分類할 計劃이며 또 現在 進行中인 大學도 많이 있다.

圖書館 司書들의 待遇는 역시 우리와 같이 他 職種에 比해서는 훨씬 낫다고 하며 또 男子보다는 女子 職員이 더 많다.

	正 規 職		計	專 門 職	其 他	非正規職	合 計
	男	女				(臨時職員 part time)	
計	249	366	615	422	193	144	759
館數	68	68	68	68	68	68	68
平均	3.7	5.4	9.0	6.2	2.8	2.1	11.2

■ 3. 職員現況

한 圖書館에 職員이 10名 以上인 圖書館이 68個 圖書館中 37個館이고 그 나머지 31個館中에는 5名 以下의 小圖書館도 5個館이나 된다.

	單行本	製本雜誌	計	年間增圓	現行雜誌
計	3,233,210	1,787,789	5,020,999	216,351	73,490
館數	66	58	66	68	68
平均	48,988	30,824	76,076	3,182	1,081

■ 4. 藏書現況

藏書現況을 보면 大體로 우리나라 보다는 훨씬 그 數가 많아서 10萬冊 以上이 15個館, 2萬冊 未

滿인 圖書館은 不過 4個館 뿐이다. 또 雜誌의 境遇는 東京大學의 2,965種을 筆頭로 1,000種 以上 購讀하고 있는 圖書館이 38個 大學이며 400種 以下의 圖書館은 2個館 뿐이다. 이처럼 單行本이나 雜誌數가 基準未達인 것은 同協會의 加入規則이 改定되기 以前에 加入한 研究所 等의 小圖書館들이다.

한편 醫學圖書館의 圖書購入費를 보면 東北大學의 50,149,000圓을 비롯해서 大阪大學 41,331,000圓, 東京大學 39,316,000圓, 九州大學 38,136,000圓 等의 國立大學은 아주 豫算이 많으나 私立大學인 日本大學의 24,464,000圓, 昭和大學 22,420,000圓, 慶應大學 17,000,000圓, 東京醫大의 16,462,000圓 等을 보면 國立에 比해 훨씬 적은 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와는 아주 正反對의 現狀으로 國家의 積極의 支援에 起因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統計表에 依하면 大學費에 對한 圖書館費가 4.3%로 나타나 있지만 神戶大學의 境遇 大學費 1億 7千萬圓에 對한 圖書館費 4千 2百萬圓은 大學費의 24%에 該當하는데 이처럼 많은 豫算을 圖書館에 配定한다는 것은 참으로 注目할만 하다. 이러한 現狀은 京都大學의 11% 東京大學의 9%等을 보더라도 圖書館에 對한 重點投資는 圖書館으로써 아주 좋은 現狀이라 하겠다.

圖書館의 開館時間은 東北大學의 午前開館, 慶應大學의 午後開館을 除外하고는 日曜日에는 全圖書館이 休館하며 一部 極少數大學에서 學生에 限해서 一部 圖書에 對한 自由閱覽을 制限하는 것 以外에는 거의가 다 完全 開架式이다. 館內 利用狀況은 開架式이므로 正確한 統計算出이 不可能

	大學費	圖書館費	人件費	維持費	圖書購入費
計	48,658,758	2,045,452	625,665	248,234	1,310,146
館數		50	51	57	63
平均	973,175	37,190	12,268	4,355	20,796
比 率		對大學費 4.3%	對圖書館費 30.6%	對圖書館費 12.1%	對大學費 2.7% 對圖書館費 64.1%

圖 5. 圖書購入費 現況

	館外 貸出				貸				借		學內複寫
	人員	冊數	日日平均		現物	複寫	現物	複寫	海外利用		
			人員	冊數							
計	412,682	884,253	1,934	3,019	5,537	139,565	3,294	82,091	1,667	752,501	
館數	57	64	56	63	65	68	65	86	64	56	
平均	7,240	13,817	35	48	85	2,052	51	1,207	26	13,438	

圖 6. 閱覽 및 相互貸借 狀況

하고 館外貸出 및 相互貸借 狀況은 圖 6과 같다. 一般的으로 圖書館의 시설이나 裝備는 아주 잘되어 있다고 본다. 全般的으로 몇가지 두두리지게 느껴지는 것은 情報 서비스의 始作, 圖書館業務의 機械化, 資料室의 設置活用, 關聯機關과의 緊密한 network로 集約된다.

圖書館서비스는 그 技術面에서 資料서비스와 情報서비스로 大別할수 있다. 資料서비스라 함은 從來 一般的으로 생각 해 오던 傳統的인 閱覽, 貸出, 複寫, 相互貸借 서비스 등의 基本的이고 必須的인 資料 自體의 提供에 依한 小極的인 奉仕를 말하고 情報서비스라 함은 이러한 資料서비스의 繼續的인 圓滿한 奉仕위에 그 資料가 품고 있는 內容 即 文獻情報을 利用者의 多樣한 要求에 알맞게 迅速히 奉仕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角度에서 適切히 加工 處理하여 提供하는 積極的인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테면 文獻情報의 探索, 索引, 抄錄, 翻譯서비스 등이 이러한 것들이다.

오늘날의 日本醫學圖書館界의 現狀은 바야흐로 資料서비스로 부터 情報서비스 에로의 轉換段階에 들어섰다고 보는것이 틀림없겠다. 歐美的의 先進諸國이 그랬듯이 몇年前만 해도 日本도 高質資料서비스 狀態였었다고 한다. 그러나 1963年 NL M(美國國立醫學圖書館)이 開發한 MEDLARS (Medical Literature Analysis & Retrieval System; 醫學文獻分析檢索시스템)의 出現으로 日本에서는 가장 먼저 慶應大學 醫學情報센터가 이러한 近代의 意味의 情報서비스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비록 部分的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約 30餘個의 圖書館이 情報서비스를 하거나 準備中에 있다 前述한 政府의 圖書館 政策에서도 말한 바와같이

文部省이 1년에 2~3個 圖書館을 選定해서 보다 積極的인 參考業務를 開始하라고 중용乃至 命令한다고 하는것은 從來의 傳統的인 資料서비스 以外에 積極的인 情報서비스 業務도 始作하라는 뜻인 것이다. 왜냐하면 資料서비스와 情報서비스와의 橋梁役割을 하는것이 곧 參考業務이기 때문이다. 參考調査業務에는 3個의 기능이 있다. 그것은 첫째 利用者로 부터의 參考質問을 받는 Information desk 에서의 所藏如否確認 등의 Quick Reference 들째 個人 研究者의 特定主題에 關하여 過去의 文獻을 二次資料에 의하여 網羅的인 溯及 調査, 셋째는 個人 研究者와 病院等 研究團體의 調査이다. 特定主題에 對하여 最新 文獻을 探索하는 繼續調 一般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參考業務는 대개 첫째 項의 그런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들째 셋째項에서 말한 文獻의 溯及 및 繼續調査를 소위 文獻探索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參考業務活動과 翻譯, 抄錄, 索引서비스 등을 包含하여 情報서비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專門的인 參考司書의 不足, 待遇, 語學能力, 豫算 등의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일면서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關聯해서 情報處理의 機械化라든가 相互協力等 世界的인 情報流通組織網(network)의 必然的인 要求는 너무도 當然한 것이다. 慶應大學 醫學圖書館이 하고 있는 몇가지 代表的인 文獻情報의 network을 소개해 보면 MEDLARS, INIS, APTIC 등을 들수 있다. MEDLARS는 Medical literature Analysis & Retrieval System의 略字로써 “醫學文獻調査檢索시스템”인데 1963년에 美國의 N. L. M. (美國國立醫學圖書館)이 開發한 것으로써

日本은 1972年 6月부터 本格的인 서비스를 시작 하였던 것이다. MEDLARS에 對해서는 紙面關係로 다음 機會에 따로 자세히 說明키로 하고 日本의 境遇에 關하여 要點만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MEDLARS는 1963年에 NLM이 開發한 全世界의 醫學關係, 雜誌中 2,400種을 選定해서 이들 雜誌에 실린 各論文에 대해서 MeSH (Medical Subject Heading)에 따라 索引을 作成하여 磁氣테이프에 蓄積시켜 利用者가 願할때 必要한 文獻을 컴퓨터에 依해 探索서비스 하는 醫學文獻 探索組織이다. 여기에 收錄된 雜誌中 日本의 雜誌는 128種, 韓國雜誌는 Yeonsei Medical Journal 하나 뿐이다. 日本은 1968年에 NLM 當局과 協議하여 慶應大學이 日本의 NLM 代理部가 되어 後藤氏等 數名이 美國의 NLM 에가서 2年間 索引業務에 對한 教育을 받고 왔다. 그래서 上記 128種의 日本醫學雜誌에서 年間約 12,000件의 論文을 索引하여 NLM에 보낸다. 이와같이 美國等 世界各地에서 索引된 資料는 月 1回씩 磁氣테이프에 蓄積되어 年間約 23萬件의 論文이 蓄積된다. 現在 月刊으로 나오는 Index Medicus는 바로 그 달에 蓄積된 索引인 것이다. 이와같이 醫學雜誌論文의 索引이 蓄積된 磁氣테이프를 JICST (日本科學技術 情報센터)에서 1972年에 40個月分을 購入하여 全日本 醫學關係者에서 有料奉仕하였다. 今年 3月에는 JICST에서 MEDLARS II의 tape를 導入할 豫定이라고 한다. 即 아래그림과 같이 input는 慶應에서 Output는 JICST에서 分割 奉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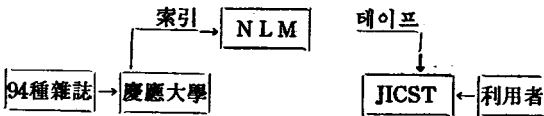


圖 7. 日本의 MEDLARS 業務

그 외에 INIS는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의 略字로써 “國際 原子力 情報시스템”이다. 오스트리아의 비엔에 本部가 있고 世界 90個國에서 나오는 原子力 關係의 文獻을 MEDLARS와 같은 方法으로 處理 奉仕하는 文獻情報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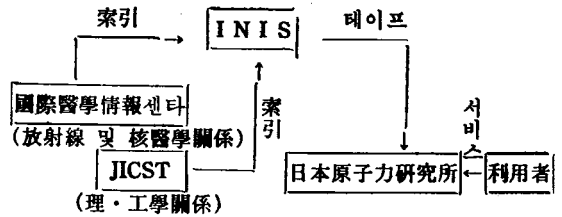


圖 8. 日本의 INIS 業務

또 APTIC는 Air Pollution Technical Information Center의 略字로써 “大氣汚染情報센터”인데 이것은 美國의 環境保護廳 大氣汚染局 산하에 있는 機構로써 MEDLARS나 INIS와 같은 方法으로써 索引資料를 input시켜 컴퓨터에 依해 서비스 하는 文獻情報 시스템이다. 日本에서는 1970年부터 國際醫學情報센터에서 索引作業을 하고 서비스는 美國人 Franklin, F氏가 直接 東京에 事務室을 두고 서비스 하고 있다.

이처럼 世界的인 Network 과의 效果的인 協力乃至 充實한 積極奉仕에는 圖書館司書의 資質 向上과 豫算이 뒤따라야 하겠다. 筆者가 日本에 있는 동안 가장 욕심나는 것은 資料室이었다. 即 Staff's Library 다 慶應의 경우 70餘種의 國內外 圖書館 關係 雜誌, 單行本 및 各種資料를 準備하여 職員이면 누구나 언제라도 自由스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東京大學 綜合圖書館의 경우에도 圖書館職員을 위한 資料室만의 藏書가 웬만한 小圖書館 만큼이나 그 규모가 크고 內容도 豊富하다. 이처럼 圖書館 司書들의 自己業務에 關한 工夫를 할수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은 忝 부럽게 生覺 되어진다.

한편 相互貸借 業務나 文獻探索의 機械化는 보다 正確하고 迅速한 서비스를 可能케 한다. 이를테면 日本內 10個 醫學圖書館에서는 이미 텔렉스를 設置해 놓고 相互貸借業務를 迅速히 處理하고 있다. 예를 들어 利用者가 要求하는 文獻이 慶應大學에 없고 大阪大學에 있다면 텔렉스를 利用, 타이프를 치면 大阪大學의 텔렉스에 直接 自動的으로 타이프 되어 나온다. 그러면 大阪大學에서는 곧 그것을 찾아서 複寫해 보내주게 된다. 또 高性能 Xerox에 依한 複寫 또는 컴퓨터나 Card Selector를 利用한 文獻探索等은 時間과

努力을 많이 節約해 주고 있다.

5. 慶應義塾大學 醫學情報센터와 國際醫學情報센터

慶應大學은 1858년에 創設된 116年の 긴 歷史를 갖인 私立의 名門이다.

本來 中央圖書館과 3個의 分館 및 圖書館과 같은 業務活動을 하던 2個의 研究室이 있었는데 보다 近代의인 學術研究教育을 爲해서 情報서비스를 하고 研究·教育和 學習을 中心으로 運營되어야 한다는 觀點에서 1961年 2月에 “新圖書館計

劃”이 세워졌다.

그後 大學內 全 圖書館의 從來의 모든 圖書館組織과 業務技能을 再編成해서 1970年부터 4個의 情報센터로 나누어 圖書館이란 이름을 情報센터로 바꾸어 버렸다. 이리하여 醫學情報센터도 1971年 4月에 發足되었다.

이처럼 積極的인 參考奉仕와 情報 서비스의 크로즈업으로 圖書館의 性格도 近代의인 技能에 맞추어 情報센터라는 이름으로 그 이미지가 바뀌어 가고있다. 實例로서 國際醫學情報 센터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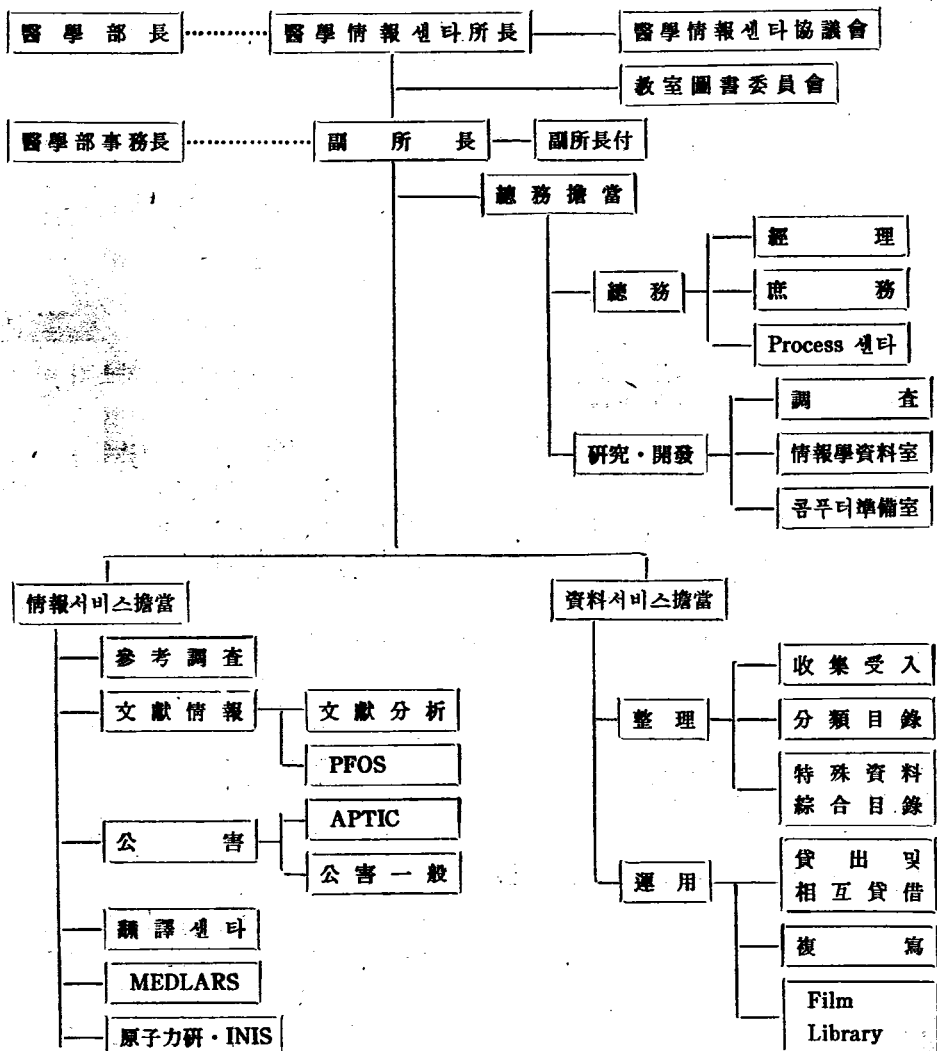


圖 9. 慶應大學醫學情報센터의 組織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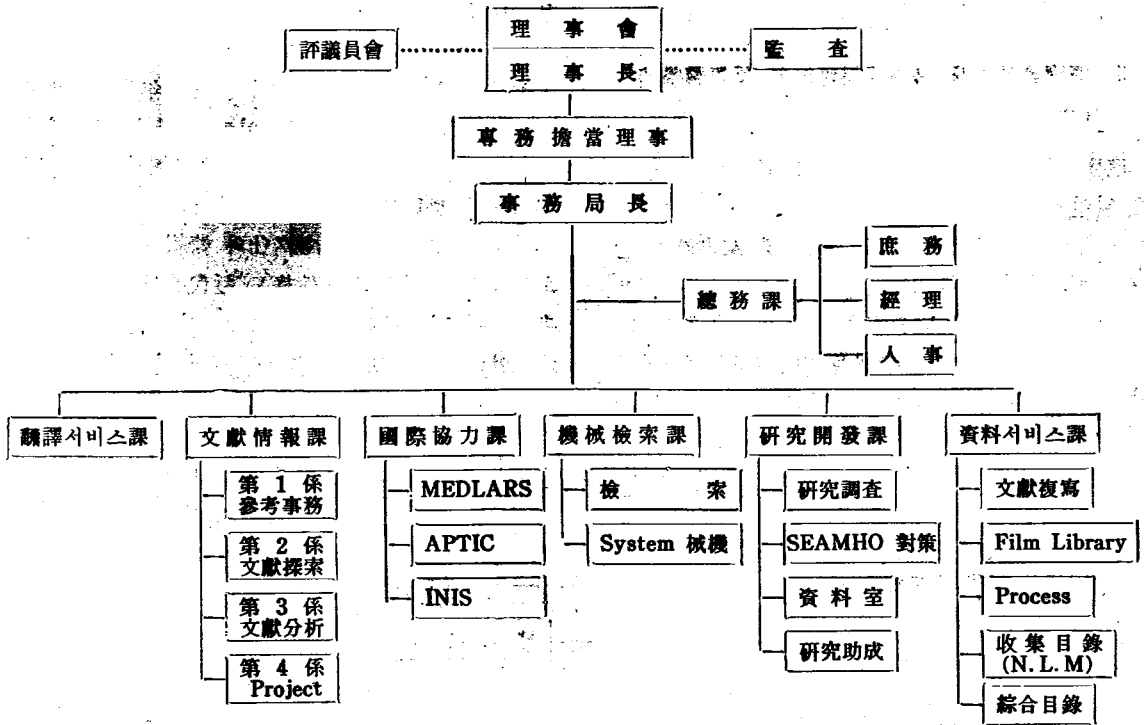


圖 10. 國際醫學情報센터의 組織圖

國際醫學情報센터는 1972年 4月에 慶應大學 醫學圖書館으로부터 分離 獨立되어 財團法人으로 認可 發足되었다. 그 背景과 理由는 大강 다음과 같은 것인 듯 하다.

1) 獨步의으로 活潑한 圖書館의 情報서비스 때문에 全國的 國際的 서비스의 混在로 學內 利用者의 利用이 壓迫되는 狀態이지만 學內外를 區別해서 奉仕하기는 어렵다.

2) 圖書館 職員이 150名이나 되어도 利用者의 要求에 充足히 奉仕해 줄수 있는 職員과 豫算이 不足하다.

3) 私立大學으로써 國家의 補助를 많이 받을수 없다.

4) 美國의 NLM 과 같은 그 나라의 中心的인 國立醫學圖書館이 日本에도 必要하다.

5) MEDLARS, INIS, APTIC等 國際的 趨勢인 情報 Network化 時代에 便乘하여 活動해야 하지만 私立大의 1個分館으로써 國家를 代表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에는 問題點이 많다.

6) 大學 및 圖書館內의 特殊한 여러가지 複雜한 事情·等等인 것 같다.

國際醫學情報센터는 建物の 建築費 및 資料購入費等 아직 最少限의 必要한 豫算이 當장 없어서 發足前과 똑같이 慶應大學의 建物과 資料를 그대로 利用하고 있고 事務室等 一部만 다른곳에 있다. 職員도 發足前의 慶應大學 職員 150名中 130餘名이 國際醫學情報센터의 所屬으로 되었으나 實際의으로는 混合勤務를 하고 있다. 또한 그의 設立趣旨에 나와 있듯이 慶應大學을 母體로 하고 또 圖書館 業務를 그대로 繼承하여 擴大奉仕한다고 나와있다.

이와같이 두 機關은 不可分의 關係가 있어서 完全히 갈라지기까지는 여러가지 複雜한 問題가 提起될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전혀 從前과 變함이 없는 것 같으므로 外部에서는 지금도 모두를 慶應大學 圖書館만으로 生覺하는 사람이 大部分이다. 두 機關의 組織圖를 比較해 보면 圖 9, 圖 10과 같다.

圖書館은 地下 1층 地上 2층의 獨立 콘크리트 建物이고 書庫만은 4층으로 되어있다. 延建坪 2,892m<sup>2</sup>로 約 970坪 程度에 閱覽席은 142席이다. 職員은 前述한바와 같이 150餘名이었던 것이 國際醫學情報센터와의 分離로 22名이 되었으나 74年 4月에는 36名이 되었다고 한다. 前記 22名中 司書資格證 所持者는 14名이다.

藏書는 單行本 33,303冊과 製本雜誌 78,689冊을 合하여 111,992冊이다. 年間 約 2,600冊이 增加하며 現行購讀雜誌數는 1,975種이다.

豫算은 總圖書館 豫算 68,695,000圓中 人件費 40,050,000圓, 維持費 11,545,000圓이고 圖書 購入費는 1,700萬圓이다.

分類는 NLMC 를 使用하고 辭典體目錄을 備置하고 있다.

閱覽은 對象을 一般人에게까지 完全公開하고 開架式이며, 年末年始를 除外하고는 日曜日에도 開館한다.

館外貸出冊數는 1日平均 120冊이며(※ 東京大學: 160冊) 相互貸借는 텔렉스 400件을 包含하여 月平均 約 2,500件, 貸借業務는 約 850件이다.

複寫는 계록스 6臺로써 月平均 18,500件(※ 東京大學 7,000件)에 120,000枚이고 年間 約 150萬枚의 複寫를 한다.(※ 日本國會圖書館: 130萬枚)

## 6. 結 論

半年間 日本의 여러 醫學圖書館을 돌아보고 強하게 느낀것은 豫算이나 人力等의 諸般 政策的인 積極支援이나, 여러가지 複雜한 現狀만을 生覺하기 以前에 圖書館 司書自身들이 獻身的인 努力으로 여러가지 不利한 與件을 改善할 수 있도록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되겠다는 生覺이 앞선다. 日本에서 들은 이야기이지만 30年 前에 어떤 醫學圖書館에서는 事務室에서 窓門을 열어놓고 낚시질 하며 消日한 일도 있다고 한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고개, 벗겨져야 할 껍질, 이러한 試練은 現在 奉職하고 있는 圖書館 司書들 만이 解決할 수 있고 해야만하는 일이라고 生覺한다.

또한 政府나 大學의 當局에서도 圖書館이 知識의 寶庫, 大學의 心藏이라고만 말하기에 앞서 充分한 理解와 協助로서 보다 果敢하고 積極的인 支援을 實踐에 옮겨 주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情報管理 Vol. 13, No. 7, p. 434-442, 1970.
2. 醫學界新聞 1000號, 1972. 5. 29 .
3. 醫學のあゆみ, Vol. 77, No. 13, p. 756-761, 1971.
4. 第44次 日本醫學圖書館協會加盟館統計, 1973.
5. 日本醫學圖書館協會要覽, 1973.